

큰스님 수행한담

“종노릇 못 벗어나요”



1976년 제천 백련사 주지로 취임하며 사제인 경산·혜소 스님 상좌 법인스님과 지리를 함께했다. 사제스님들은 모두 입적했다. 맨 가운데가 담원스님.

가서 불교초등과정인 초발심자경문과 대심경을 3개월간 공부하라고 했는데 3일 만에 다 외워버렸지요. 그래서 평양에서 1백70리나 되는 묘향산 월림역까지 기차를 타고오며 수많은 다짐을 했습니다. '불구의 몸으로 식당운영하여 학비를 주시는 만성스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자'

“마음은 넓히면 허공도 삼키지만 좁히면 바늘끝 꽃기에도 모자라요”

배우는 외과(外科)도 수학했어요. 강사는 일본 구태대학을 졸업하고 신구학문을 통달한 이문옥스님과 박동산스님 김용담스님 양수암스님이었지요. 만성스님은 재적사가 영명사였는데 나의 공부를 위해 보현사 재적승 월봉스님에게 전거하여 제자로 삼도록 했지요. 보현사는 유학승 제도가 있어 공비로 일본유학까지 갈 수 있었지요. 월봉스님은 나에게 “스님은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지요. 은사스님은 원래 기독교 전도사였어요. 하루는 계룡산 동학사의 대강사에서 김만우스님을 전도하려 찾아가다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발심하여 출가하신 분이요. 스님은 포교사로 이름이 높았습니니다. 이후에 신의주와 중국의 연변등지까지 가서서 포교에 전념하다 해

방후 한국으로 돌아와 제주교무원장과 본사인 관음사주지를 역임했습니다. 계행이 청정한 대유사로 사부대중의 추앙을 받으며 열반에 드셨습니다. 대교과를 졸업하고 극락선원에 가서 참선수행을 했습니다. 2년간의 수행은 부실한 몸을 추스리며 보낸 뼈를 깎는 아픔이었지요. 참선수행은 인간자신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확인하여 자립할 수 있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굳건한 터전을 스스로 쌓아올리는 일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음과 몸을 고요히 하여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마음을 찾는 참선공부는 종교적 신앙이나 학술적인 논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의심하고 궁구하며 체

험해서 깨닫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마음은 형체가 없어서 찾아보려면 새가 허공을 날아간 자리와 같아서 보려고 하여도 볼 수 없고 찾으려하여도 찾을 수 없습니니다. 이후 일본유학대신 보현사에서 서울 안양동에 위치한 중앙고등강원이었던 대원강원 수의과에 보내졌어요. 당시 그곳에는 국내에서 첫째가는 강박이었던 박한영스님이 계시지요. 스님은 불교학 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학문과 지식에도 능통하였지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당시 최고의 엘리트 자리가 공인제도 물 당 최남선선생이 자기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것이 없는데 박한영스님께는 물어볼 것이 있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형님이 찾아와 10년만에 고향

에 갔다가 징병1기로 일본 탄광에 끌려가게 됐습니니다. 탄광은 사람살 곳이 아니예요. 그러다 해방해서 귀국했는데 대마도 근처에서 배가 암초에 부딪쳐 파산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니다. 당시 70여명이 급한마음에 바다에 뛰어들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살고죽는 것은 별 것 아니습니니다. 인생 100년은 무상하기 짝이 없지요. 또 이세상이 아무리 넓다해도 달팽이 뿔사 이만도 못하지요. 그것을 안다면 더 잘살겠다고 애용다들 써워왔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니까. 서산스님은 '단국의 도성은 개미의 집이요, 천가의 호걸은 하루살이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달관과 집념이 없는 텅 빈 마음으로 우주의 영원함을 생각하면 인생 백년의 생활중에서 흥과 그름을 서로 다루는 것은 얼마- 구구합니까. 세월은 한없이 길어서 끝이 없는데 번거롭고 바빠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일생을 부질없이 지내버리고 맙니다. 천지는 한없이 넓어서 자유로운데 잔약한 인간들은

스스로 좁게 만들어 한몸 용납하기도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해방후에는 대 강박으로 불경을 거의 번역하여 현토했던 안진호스님의 근산회에서 '불조원류' 편찬일을 도왔습니다. 당시 안진호스님은 70이 넘는 고령으로 교동의 불경을 무릅쓰고 자전기로 전국을 순회하며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열성이 대단했지요. 그래서 불조원류가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서가 돼 많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전국을 만행하며 파계사 성전암과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수행하다 가야총림 해인사로 들어갔어요. 방정은 효봉스님이었는데 스님은 항상 대중과 함께 공양을 하는등 모든 일에 하심하고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상에 집착 진리를 모르면 얼굴 맞대도 천리같이 멀고 마음비워 도를 알면 천지가 한집입니다”

하루는 방장스님이 오라고 해 갔더니 나보고 강원에서 강의를 하라는 것입니니다. 나이도 28세에 불과하고 실력이 못된다고 사양의 말씀을 올렸으나 스님은 대중들의 요청이라며 강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됐습니니다. 6·25사변이 터지고 수행자들이 부산 범어사에 찾아들었지요. 선학대본산이며 수계산림 금강계단이었던 범어사에는 동산스님이 주석했는데 누구든지 수좌가 걸방지고 오면 무조건 반가워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거두뵈이고 걸방지고 떠나면 몹시 섭섭해 하셨습니다. 1백30여명이 결제를 했는데 운허스님이 <능엄경>을 강설하시고 나는 중강을 했습니다. 동산스님의 예불은 백이었지요. 아침이면 대중을 이끌고 부처님이 모셔진 상단에서부터 산신각의 하단까지 참배를 합니다. 저녁이면 하단인 산신각부터 상단의 부처님까지 각 단을 돌아가며 절을 했어요. 아침이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며 저녁이면 해가 있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각 단을 도는 것이 체용의 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미혹에 싸여있기에 눈앞의 오만 상에만 집착하여 도에는 천리만리 멀어지고 탐진치 번뇌가 끊이지 않아서 도에 가깝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중생의 미한 소견으로 볼 때는 우리의 현실생활이 좋게 또는 그르게, 착하고 또는 악하게 보입니다. 아름답고 추함의 경계를 갖고 노여움 즐거움 두려움을 가지며 스스로 천당 지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경지에서 보면 열음과 잃음, 모양이 없고 능소와 대대가 끊어져서 너와 내가 따로없고 부처와 중생이 틀이 아닙니다. 분별심이 끊어져서 누구나 부처의 본성을 보고 언제나 깨닫고 평등한 불국정토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고 바람은 서늘해서 산색과 물빛이 서로 영롱한 것은 깨달은 자의 경계이며, 안개끼고 구름이 일어 위는 밝고 맑은 어두워 산천의 그림자가 막힌 것은 미혹한 자의 경계입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현덕

<전자신문 뉴미디어 국장>

스님은 26년의 기도끝에 지난 95년 부처님진신사리 34과를 길상암에 모셨다. 미안마 종정 곱에 동방의 한 스님에게 사리를 주라는 계시가 있었는데 그 분이 바로 명진스님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지성으로 기도를 하였다. 스님은 사람을 만날 때 누구나 하심(下心)으로 대했다. 남노소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았다. 분별심이 사람대를 대한다는게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스님은 절의 주인은 불자를 이라고 하셨다. 주지(住持)의 주는 주인(主)자가 아닌 살 주(住)인 것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다. 스님의 음식솜씨는 일품이었다. 종가집 만드느라 못지 않았다. 된장 고추장 담그는 일을 비롯해 공양간에서 보살들과 함께 배추도 절이고 실컷이도 했다. 옆에 서 있던 나도 배추를 다듬기도 했고, 실컷이도 거들었다. 절 생활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도 생각도 바뀌었다. 좌우명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로 정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극락과 지옥이 어디 있는가. 바로 내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 마음 한번 달리 하면 기쁨도 슬픔도 사라진다. 인연따라 이 세상에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우리 삶이다. 나는 최근 들어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만남은 얼마나 고귀한 인연에 속하는가. 그리고 가능한 배풀며 살려고 한다. 과거에는 남한테 받을 것만 생각했다.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삶의 여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명진스님은 불교는 마음을 닦고 깨우치는 종교라고 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천수경·금강경 등 읽으며 하루 시작 '인연을 소중히...배풀며 살자' 다짐

이런게 일을 할려면 끝이 없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자신의 일이었다. 하루 3번 예불하고 때 맞춰 공양하고 피곤하면 한숨 자고 그러다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다. 여름 할 일을 그렇게 보냈다. 나는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길상암을 떠나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다. 스님과의 선연(善緣)은 1년 6개월로 끝났다. 지난해 11월 느닷없이 열반에 드신 것이다. 전화연락을 받고 안개질은 새벽길을 달려 이른날 아침 길상암에 도착했으나 스님은 어서 오라고 예전처럼 반겨주지 않았다. 그대신 노랑고 하얀 국화 향기속에 묻혀 인자한 눈길만 주셨다. 길상암에 머물때 다음번 불교성지순례를 같이 가자고 하신 약속 불이행에 대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스님육신은 사라지고 이제 사리 61과만이 남아 지난 시절 인연을 말하고 있다. 나는 삶을 한 번 더 사는 것이다. 쓰러지기 전과 그 이후의 두번이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면 불교와 인연은 맺지 못했을 것이다.



스님한테 <불자독송집>을 한권 받았다. 길상암 생활 첫날 아침 스님이 요사채 방문앞에 살며시 놓고 간 책이다. 나는 하루를 <천수경>과 <금강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내 마음속에 버티고 있는 탐진치를 끌어내기 위하여

다. <금강경> 중에서도 일체유심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과(應作如是觀)(일체 생명의 생법법은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이 마땅히 이같이 불지이다) 구질이 가슴에 와 닿는다. 재행무상(諸行無常)인데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집착하기 때문이다. 불경을 독송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다. 승용차안에서도 불경 테이프를 자주 듣는다. 이런 일이 잦아 아이들 우리 차는 '이동하는 절'이라고 농담을 해 그때마다 폭소가 터진다.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1월이다. 새해 스님이 덕담을 하셨다면 열불일념(念佛一念)이면 재복복생(財滅福生)이라며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다. <끝>

Advertisement for 'Bongchokheungsa' (봉축행사) featuring 'Garo-dong' (가로동) and 'Bomdang' (법당) services. It includes a diagram of a 'Gyuk-gyok' (규격 등간격) device with various components like 'Inchong' (전구), 'Sokkot' (소켓), and 'Inchong' (전구). Text describes the device's specifications and usage.

Advertisement for 'Nanchibing' (난치병) treatment. It features the title '난치병치료안내' and describes a treatment method using 'Jinshin' (정신질환) and 'Bhyunggan' (B형간염) treatments. It lists various symptoms and offers a consultation service.

Advertisement for 'Hyundai Hwameeri Resort' (현대 웨미리 리조트). It features the title '290만원대 콘도 이용권 한정 판매' and describes a special offer for condo usage rights.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resort's facilities and the offer's terms.